

정읍시, 불법광고 차단 자동전화 첫 도입

눈길끄는 '특특행정'

군산시, 전국 첫 공공음식배달앱 출시

집중·반복 전화로 불법광고물 잡는다

현수막·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5~20분 간격 전화 철거 유도

정읍시는 오는 16일부터 불법 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이 시스템은 현수막, 전단지, 명함형 광고 등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5~20분 간격으

로 자동 발신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정읍시는 전화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을 안내함과 동시에 과태료 경고 메시지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자동전화 송신번호는 매회 변경 발송되며, 착신자가 송신번호를 차단할 경우에 대비해 200여 개의 무작위 번호를 마련했다.

정읍시는 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회문제인 음란·퇴폐·사행성 광고물에 대응, 집중·반복적인 자동전화로 해당 광고

번호를 무력화해 불법 광고 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자동경고 안내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 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겠다"며 "앞으로도 광고주 의식 개선 등을 통해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가입비·광고료 없이 배달 음식 주문하세요

지역사랑 상품권 연계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군산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입비와 광고료를 없앤 전국 첫 공공 음식배달앱 '배달의명수'를 13일 출시한다.

10일 군산시에 따르면 배달앱 시장의 급격한 팽창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

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음식배달앱인 '배달의명수'를 개발, 출시하게 됐다.

음식배달앱 '배달의명수'는 소비자들이 기존 배달앱과 마찬가지로 휴대폰으로 앱을 다운로드 받아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원하는 음식을 주문·결제하고 소상공인들은 주문내역을 확인 후 조리·배달해주는 시스템이다.

군산시는 한국조폐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의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소비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산시는 오픈 출시 이벤트로 500명에게 주문 시 2000원 할인과 가맹점 자체 할인쿠폰 발행·무료배송, SNS를 활용한 인증샷, 사연글 공모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전주시, 취약계층 5만명에 전국 첫 50만원씩 지원

코로나 극복 위해 실업자·비정규직에...김승수 시장 추경안 제출·시의회 긍정 검토

전주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0일 열린 제3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김 시장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고통을 받는 층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재난으로 소득이 줄면서 생계 지체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전주시의회가 이를 수용하면 전국 최초로 사례가 된다. 대상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가량으로,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되며 3개월 안에 전주

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재난 기본소득 250억원 등이 포함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43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출이 줄었지만, 인건비 등 고정적인 지출에 허덕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복도와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원(총 134억원)을 지원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 중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하기 위해 9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20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이날부터 13일까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도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박기섭 기자 parkks@



전북도가 공모한 '2020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 사업'에 선정된 남원시 운봉읍 동편제마을. <남원시 제공>

지역 푸드플랜 추진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먹거리 공급 선순환 체계 구축 발기인 총회...5월 법인 출범



군산지역 푸드플랜 추진을 담당하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발기인 총회가 지난 9일 열렸다. <군산시 제공>

군산시가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단위 푸드플랜 추진을 본격화 하기 위한 실천적 중간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다.

군산시는 지난 9일 강임준 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생산자단체, 유통, 소비자 시민사회 등 24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가운데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기인 총회는 재단 이사장인 강 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재단 설립 취지문 채택, 정관안 승인·의결, 재단 운영을 위한 임원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으로 진행됐다.

앞서 군산시는 지난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립축수산

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 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출자·출연기관 심의 및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했다. 강 이사장은 "기존 농업

정책의 생산과 소득지원 중심에서 유통과 소비 촉진에 집중해야 한다"며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오는 5월 설립허가와 설립등기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남원 동편제마을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로

전북도 공모사업 선정 10억 확보...소리솔 숲 등 복원

남원시 운봉읍 동편제마을이 전북도가 추진한 '2020년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10일 남원시에 따르면 동편제마을이 전북도 공모에 선정돼 올해부터 2년간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이 보유한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유지하면서 이를 활용해 농촌관광을 개발, 마을가치를 높이기 위해 구상됐다.

남원시는 3560㎡의 소나무 숲림 식재와 숲 경계 부분의 축대를 정비해 숲 훼손을 방지하는 동편제 소리솔숲을 복원한다.

또 마을입구 450m 산책로 정비와 야간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해 솔바람 길을 조성한다.

해발 470m 고원 분지에 위치한 동편제 마을은 150년 이상 된 소나무 92그루

가 동구술 형태를 이루고 있어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이 소나무 숲은 조선 숙종 때부터 우거진 것으로 전해진다.

동편제마을은 산양치즈와 소시지 가공체험, 판소리 체험 등 다양한 관광체험을 할 수 있고, 지리산 둘레길 2코스와의 연계로 방문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자연환경 덕에 지난 2011년 농촌체험휴양마을, 2015년 전북 농촌관광거점마을로 지정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동편제마을의 특성을 더욱 잘 살려 농촌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수려한 지리산 운봉고원의 자연자원을 접목해 남원을 머물고 가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